

【서평】

연옥의 안과 밖: 북송(北送)과 탈북(脫北)의 이야기들

테사 모리스-스즈키, 『북한행 엑서더스』 (서울: 책과함께, 2008)

이순형 · 김창대 · 진미정, 『탈북민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이상신(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나를 거쳐서 슬픔에 잠긴 도시로 가거라
나를 거쳐서 영원한 괴로움 속으로 가거라
나를 거쳐서 사라져 버린 족속 곁으로 가거라

— 단테, 『신곡』

사회과학의 연구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덕목 중의 하나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로 연구대상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가능할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일이 많다. 연구 대상과 연구자가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은 채 온전하게 객관적 관찰만 한다는 것은 심지어 물리학 같은 자연과학에서도 힘든 일이다. 20세기 양자역학의 발전이 과학자들에게 남긴 교훈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행위 그 자체가 연구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물며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에 있어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지 모른다.

최대한 과학적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들을 더하고 뺄 수 있는 숫자로 환산하여 연구하는 방식이다. 인간을 숫자로 대체함으로써 사회과학자들은 연구대상에서 인간의 얼굴을 최대한 탈색하고 비로소 그것을 하나의 자료로서 대할 수 있게 된다. 통계를 통해 사회과학자들은 개인 하나 하나의 슬픔과 기쁨, 고통과 역정에 대한 스토리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예측과 통제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이론 구축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연구 방법론은 종종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망각시킨다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밤길에 열쇠를 잃어버린 한 주정뱅이가, 열쇠를 떨어뜨린 그 자리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밝은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더라는 이야기처럼, 사회과학자들은 종종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라서가 아니라 과학적 연구에 적합한 주제이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는 실수를 범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사소한 변수들의 상관관계에 대해 토론하고 이론을 만든다. 이렇게 현실과 유리된 유리알 유희로서의 과학은 결국 과학자들을 인간의 삶에서 격리시킨다. 연금술사 파우스트에게 메피스토펠레스가 속삭인 것처럼, “모든 이론은 잿빛이며 오로지 영원한 것은 저 생명의 푸른 나무뿐”인 것이다.

테사 모리스-스즈키의 책 『북한행 엑서더스』와 이순형·김창대·진미정의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은 통일과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그들의 연구 주제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라는, 종종 쉽게 망각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미덕을 지닌 책들이다. 테사 모리스-스즈키의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1959년부터 시작된 재일교포 복송사업이

며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은 2009년 현재 우리의 현실인 탈북민들의 삶의 모습이다. 두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의 시간적 배경에는 50년의 시차가 존재하지만, 한반도의 분단이 빚어낸 동아시아의 블랙홀에서 파괴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들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 테사 모리스-스즈키의 책이 북한, 남한, 일본, 소련, 미국, 그리고 국제 적십자사의 치열한 정치적 투쟁 속에서 정작 북송의 대상이었던 재일교포들이 소외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반면, 이순형·김창대·진미정의 책은 탈북민들의 가족이 탈북과정에서 어떻게 해체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되는가를 탈북민의 관점에서 추적함으로써 이들이 남북한 사회의 다른 소외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쓰였다는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

역사가로서 테사 모리스-스즈키가 답하려 하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다. 왜 8만 6,603명의 재일교포와 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인 일본인 6,730명과 중국인 7명이 ‘자발적으로’ 북송선에 몸을 실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의 책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선 매우 훌륭한 답을 내놓지만, 본인도 인정하듯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선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 그들이 북한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그 누구도 제대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중 소수만이 중국으로 다시 탈북했고, 약 120명은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 귀환했다는 것 정도만이 알려져 있다.¹⁾ 『북한행 엑서더스』에서 물음표로 남겨졌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략적인 답은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 속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량 이주 과정에서의 신산한 개인의 삶은 1959년의 북송과정에서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의 참화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던 이들이 또 다

1) 테사 모리스-스즈키, 『북한행 엑서더스』 (서울: 책과함께, 2008), p. 34.

른 희망을 품고 다시 돌아간 것이 어처구니없게도 북한이었다는 것이 북송의 아이러니였다. 이제 북한에서 도망쳐 나온 이들에게 제2의 엑서더스의 종착역은 어디가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 두 책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해석을 통해 찾아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하는 무엇임이 이 두 책은 동시에 일깨워주고 있다.

I. 북한행 엑서더스

자주 인용되는 서양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테사 모리스-스즈키가 공들여 묘사하고 있는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이야기처럼 이 속담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건이 또 있을까 싶다. “1959년 12월 17일 밤 도쿄 시나가와 역에서 니가타 항까지 간 362명의 이야기를, 1959년 12월 21일 북한의 청진을 향해 니가타 항을 출항한 976명의 이야기를, 1959년 12월부터 1960년 말 사이에 같은 루트를 따라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5만 1,978명의 이야기를, 1959년 12월 귀국운동 개시 때부터 1984년 종료 때까지 북한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꿈꾸고 일본에서 귀국한 9만 3,340명의 이야기를 탐구하는 여행에 대한²⁾” 기록인 이 책은 재일교포들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려 했던 국제적십자사의 선의가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어떻게 이용당하는 지를 보여준다. 테사 모리스-스즈키는 스위스, 한국, 일본, 북한, 오스트레일리아를 넘나들며 마치 추리소설의 탐정처럼 이 북송 사건의 진말을 헤쳐 나간다.

²⁾ 위의 책, p. 31.

1956년 4월 한 무리의 재일조선인들이 일본 적십자사 건물 앞에서 북한으로의 귀국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일본 적십자사의 공식적인 입장³⁾은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여기에는 국제 적십자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 북한 적십자와의 교섭, 그리고 소련 정부의 수송선 제공이 결정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테사 모리스-스즈키는 이것을 “은폐의 이야기⁴⁾”라고 단언한다. 북송에 대한 진실은 “일본의 권력 계급에 속해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이며, “이 사람들은 조선인 마이너리티를 일본에서 북한으로 대량 이주시키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맡은 역할이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 이면의 이야기에 무지했다는 것은 이들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⁵⁾ 북송 사업은 일본의 치안을 교란하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귀찮은 존재로만 인식되었던 재일 조선인들을 북한으로 이주시키는 방법을 통해 제거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공산주의 체제를 선전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철수 이후 부족해진 노동력을 확보하고 싶어 했던 김일성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북송의 여정이 시작된 곳은 한반도였다. 일제 강점기의 강제 징용, 뒤이은 분단과 극심한 이념갈등, 제주도 4·3 항쟁과 한국 전쟁 등으로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1945년 광복 후 약 200만 명에 달하던 재일조선인 중 100만 명 이상이 남한으로 귀국했지만, 곧 이은 분단으로 말미암아 일본에는 6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남게 된다.⁶⁾ 이들에게

3) 위의 책, pp. 105-143.

4) 위의 책, p. 122.

5) 위의 책, p. 122.

또 다시 대규모 이주가 강요된 것은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되어 드디어 일본이 다시 독립국이 되면서부터였다. 재일조선인들을 사회불안 요소 정도로 인식하고 있던 일본 정부는 이 조약 발효와 더불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과 대만인은 일본 국적을 잃게 된다고 선언해버린다.

잃은 것은 국적뿐만이 아니었다. 동시에 재일조선인들은 공영주택 입주권과 주요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도 잃었다. 일본 거주 외국인들은 국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로부터도 제외되었고, 공무원 혹은 의료 등의 전문직을 가질 수도 없게 되었다. 또 그들은 일단 해외로 나간 후 일본으로 자동적으로 재입국할 권리도 잃었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나 가족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했다.⁷⁾ 이미 일본에서 노골적인 차별의 대상이었던 재일조선인들은 복지혜택의 상실로 인해 헤어나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받았다. 특히 취업 사정이 매우 열악해서 1950년대 초에는 취업 연령에 있는 재일조선인 3/4이 실업 중이거나 임시직으로 일해야 했다.⁸⁾

북한으로의 이주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진 재일조선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으로 보였음이 틀림없다. 딱히 북한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북송을 선택한 사람들의 97%는 남한 출신이었고, 이 중에는 4·3 항쟁을 계기로 제주도에서 탈출해온 사람들도 상당수 끼어있었다. 한국전쟁 직후, 아직도 피비린내 나는 이념 대립의 기억이 선명한 남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들은 별로 없었고, 이승만 정권은 곤궁에 빠진 재일조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어떠한 조치도 취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6) 위의 책, p. 43.

7) 위의 책, pp. 95~101.

8) 위의 책, p. 101.

1950년대 초 일본 정부에게 재일조선인들은 큰 두통거리였다. 곤궁한 하층민을 형성하고 있던 이들을 일본 정부는 잠재적 치안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좌익성향이 강했던 조선인 사회는 1955년 5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을 조직하는 등 공안 문제의 위험성도 같이 지니고 있었다.⁹⁾ 따라서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려는 의도를 1954년부터 가지고 있었다. 모리스-스즈키는 1954년 1월에 이미 일본적십자사에서 평양의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메시지를 보내 북한 내 일본인의 일본 귀국과 재일조선인중 원하는 자들의 북송을 맞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것을 밝혀낸다.¹⁰⁾

위에 언급했지만 지금까지도 일본 적십자사가 밝히고 있는 북송의 발단이 된 사건은 1956년 4월의 재일조선인 농성이다. 하지만 모리스-스즈키는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적십자사 문서보관소를 뒤진 끝에, 사실은 이보다 훨씬 이전인 1955년부터 일본 적십자사가 재일조선인의 북송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증거 서류를 찾아낸다.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과 남한 정부가 국교 정상화를 타진하고 있던 당시, 이승만 정부가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 뻔한 북송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는 없었고, 그 대안으로 찾아낸 방법이 적십자사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북송은 일본 내 좌우 세력이 모두 공감했던 문제였다. 보수 집권당인 자민당은 물론이거니와 야당인 사회당조차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¹¹⁾ 거기에 사회당 내부에선 김일성의 북한 사회를 신뢰하는 측면도 있어서, 당시 정치적으로 분열되었던 일본 정계에 있어서 북송 문제는 드물게 좌우가 모두 찬성하는 과업이었다. 여기에 체제

9) 위의 책, pp. 104~105.

10) 위의 책, p. 127.

11) 위의 책, pp. 139~140.

선전을 소망했던 북한 정부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졌다. 여기에 1958년에는 중국이 대약진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남아 있던 30만 명 정도의 군대를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북한의 전후 재건 사업에도 투입되었던 이 중국군이 떠나자 북한은 노동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중국 내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귀국을 중국에 요청하여 결국 4만 명 정도의 귀국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다.¹²⁾ 이런 상황에서 60만 명에 달하는 일본 내 조선인들은 북한 정부에게 매력적인 노동력으로 보였을 것이다.

북송을 원하는 재일조선인들, 이들을 일본 밖으로 쫓아버리길 갈망한 일본 정부, 그리고 이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한 북한 정부까지 북송에는 장애가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에 변수로 작용한 것이 이승만 정부의 태도였다. 이승만 정부는 재일조선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했지만, 이들의 북송은 극력 반대했다. 1956년 4월 북송을 요구하며 일본적십자사에서 농성을 벌인 47인의 재일조선인들을 북송시키기 위해 일본적십자사와 조선적십자사 간 협조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의 북송에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데, 이는 남한 정부가 이 첫 북송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영국 국적의 해운회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 때문이었다. 또 남한 정부는 이승만 라인을 넘어온 일본 어선들을 나포, 700명에 달하는 일본 어선 선원들을 억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¹³⁾

북송 사업에 결정적인 골칫거리로 등장한 남한 정부의 위협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소련의 개입이었다. 1957년 뉴델리에서 열린 적십자 운동의 국제회의에서 일본은 로비를 통

12) 위의 책, p. 273.

13) 위의 책, pp. 189~201.

해 결의 제20을 통과시킨다. 그 내용은 전쟁을 비롯한 재해가 일으키는 이산 가족 문제에 대해 각국 정부와 적십자사는 “온갖 수단을 강구해 이들 어른 및 아이들이 그 의사에 따라 그리고 어린이의 경우는 거주지가 어딘지를 불문하고 가장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그 가족과 재회하는 것을 용의하게 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었다.¹⁴⁾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조항은 부산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선원의 석방 근거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북송 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추인을 얻어낸 것이었다.

뉴델리 결의 제20을 통해 국제적 명분 쌓기에 있어 한국정부를 수세에 몰아넣는데 성공했지만, 일본과 북한은 그래도 북송선박을 남한 해군이 공격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도움을 청한 것이 소련이었다. 소련이 북송사업에 선박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자 드디어 북송 사업에 대한 마지막 장애물을 해결한 셈이 되었다. 그리하여 1959년 12월 21일, 소련 선박이 976명의 재일조선인을 싣고 북한으로 출발한 것을 필두로 그 후 25년간 지속되어 9만 3천여 명이 북한으로 돌아간 이 거대한 “북한행 엑서더스”가 시작된 것이다.

모리스-스즈키가 재구성하는 이 50년 전의 비극은 마치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고 스틸이 넘친다. 그러나 현실은 탐정소설처럼 이야기 마지막에 명탐정이 모든 것의 비밀을 일목요연하게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모리스-스즈키의 진실을 찾는 여정은 때때로 막다른 골목길에 부딪히며 그녀가 찾지 못한 결말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것은 탐정의 능력 문제가 아니다. 현실에서는 종종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4) 위의 책, p. 226.

II.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

『북한행 엑서더스』가 이야기가 벽에 부딪히는 지점은 재일조선인들이 북한으로 입국한 이후이다. 그들이 그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무척이나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을 것이라고는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한민족의 엑서더스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대규모 탈북이라는 형태로 다시 반복되기에 이른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 탈북의 행렬은 바야흐로 남한 내 새터민 2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제 탈북민들의 삶의 문제는 북한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사회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순형·김창대·진미정의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은 『북한행 엑서더스』가 멈춘 그 지점에서의 답이 무엇일지를 다름대로 짐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연구다. 『북한행 엑서더스』가 재일조선인들의 시각에서 북송문제를 보려고 시도한 것처럼, 이 책에서도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에 대해 새롭고 신선한 시각”을 얻고자 노력했으며, “양적 방법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현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¹⁵⁾ 탈북자들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주제를 위해 이 연구에서 조사한 대상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을 받고 나오는 탈북민이나 그들에게 소개받은 비슷한 처지의 탈북민 19인과 관련자 4인이다. 여기에 국외에서도 탈북민 3명과 관련자 2인을 추가로 인터뷰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15) 이순형·김창대·진미정,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p. 20.

이 책에 따르면, “가족의 분산과 재회, 가족관계의 복잡한 구성, 가족 내부의 갈등과 이해관계 등이 그들의 탈북 경험 안에 내포”되어 있으며, “탈북민의 가족은 해체와 재구성을 반복하면서 생존하는 놀라운 탄력성(resilience)을 가지고 있다.¹⁶⁾” 이 탈북민의 가족 문제는 그들의 개인 문제이면서, 북한, 남한, 중국 및 제3국에 그들의 가족이 흩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국제적인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동아시아 이곳 저곳에 흩어진 탈북민의 가족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초국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탈북민의 가족 문제는 남한 정부에서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이 2007년 통과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법률 19조 2항에서는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이 목적하는 바는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북한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결혼 관계를 이루었던 탈북민이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 복잡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인 이 법률은, 남한 사회가 탈북민을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그 가족 문제를 남한의 사회 문제의 일환으로 보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법률안과 관련된 한 탈북민 가족의 사례는 탈북민 가족의 해체 및 재구성의 문제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 탈북 여성은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통일부가 비보호대상자 확인서를 작성하는 도중 남편 역시 남한

16) 위의 책, p. 2.

에 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자신이 탈북해 중국에서 조선족 남편과 사는 동안, 남편도 북한에서 재혼을 해서 새 부인과 아이들이 생겼고 이들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오게 된 것이다. 남편은 북한에서부터 가족과 함께 왔으므로 남편의 호적에는 재혼한 부인과 아이들이 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반면, 부인은 조선족 남편과 사실혼관계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호적에는 북한의 남편이 현재 남편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남편이 비보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탈북민의 이혼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 이혼이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미 다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합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남한의 법규정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¹⁷⁾

이 책에서는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을 (1) 비자발적 해체와 재구성 (2) 선택적 해체와 재구성, 그리고 (3) 아노미적 해체와 재구성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¹⁸⁾ 첫 번째 비자발적 해체와 재구성은 외부 환경 요인 때문에 탈북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이 해체되었으나 해체 이후에도 끊임없이 가족을 다시 찾으려 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 선택적 해체와 재구성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가족이 해체된 후 원가족의 재결합에 노력하기 보다는 새로운 생식가족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를 말한다. 그리고 위 사례에서 언급된 가족 해체와 재구성 유형은 세 번째인 아노미적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택적 혹은 비자발적 요인들이 이리저리 뒤엎힌 복잡한 가족 해체유형을 뜻한다. 탈북민들은 북한 탈출 및 중국 체류 과정, 그리고 남한행 및 남한 사회 적응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체를 경험하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가고 있다.

비교적 적은 숫자의 참여자들을 심층 면접하여 그 내용을 심도 깊게 분석한 것은 이 연구의 장점이자 동시에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

17) 위의 책, p. 67.

18) 위의 책, pp. 61-80.

서 주로 다루고 있는 대상은 남한에서 이혼한 탈북민인데, 이들의 가족 경험이 전체 탈북민의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 책의 연구 주제가 가족 해체와 재구성이었다면, 같은 상황하에서도 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를 함께 조사하여 비교하는 것이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Ⅲ. 귀환 혹은 탈출

『북한행 엑서더스』와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은 모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행하는 여행의 이야기이다. 1959년의 북송민들, 2009년의 탈북민들은 모두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재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미래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1959년의 여행이 어떤 파국적 결말을 맞았는지는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다.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기 힘들어진 일본을 떠나 따뜻한 고국에서의 환영과 새 삶을 기대했던 그들이 일본과 북한 정부 모두에게 속았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대량 이주는 필연적으로 남한과 북한, 일본에 걸친 가족의 파편화 현상을 가져왔다. 주로 북송과정의 정치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 모리스-스즈키의 책이 비교적 소홀히 다루고 있는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 그것이 개인의 심리와 가족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은 훌륭한 보완재 역할을 해준다.

이 서평을 준비하면서 놀란 것은 뜻밖에 국내에서 북송과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9만 3천 명의 재일조선인들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조직적으로 북한에 보내진 그 정치적 맥락과 파장에 대한 연구가 남한에서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일 정도였다. 부끄럽게도 외국인 연구자의 도움을 얻어 한민족의 잊혀졌던 역사

의 한 조각을 되찾았다는 것은 우리 국내 연구자들 모두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20세기 한민족은 민족 전체의 디아스포라와 엑서더스를 경험했다. 단지 9만 3천 명의 북송민과 3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어느 의미에선 한민족 전체가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향한 것이 20세기 우리의 역사였다. 한번 떠난 고향으로는 영원히 되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아직도 어딘가를 향해 전진 중이다. 북송과 탈북의 이야기는 이 여행의 과거이며 현재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지도이기도 하다.

저명한 재일교포 소설가 유미리는 손기정과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육상선수였다가 동생이 이념문제로 일본 헌병에게 사살된 후 일본으로 건너온 양임득의 외손녀다. 죽기 사흘 전까지도 계속 마라톤을 뛰었다는 양임득의 행적을 찾아 한국에 온 유미리는, 외할아버지의 고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그녀의 글은 북송과 탈북의 경험을, 그리고 그 외중에 해체되는 고단한 가족의 현실을 잘 요약하고 있다.

외할아버지는 동생을 대신해 사력을 다해 도망친 게 아니었을까. ‘나처럼 빨리 달렸으면 춘식이라도 살 수 있었을 텐데’라는 통한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도망자’가 된 것이다. 징병으로부터도, 조국으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모든 것을 뿌리치고 도망치다가 ‘고독’이라는 골인 지점을 빠져나갔다……. 핏줄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나 또한 지금까지 수없이 도망쳐왔다. 집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서. 지금도 어디선가 위기의 그림자가 닥쳐오면 언제라도 도망칠 자세를 취하고 있다.¹⁹⁾

19) 유미리, 『세상의 균열과 혼의 공백』 (서울: 문학동네, 2002), pp. 50~51.

이상신

University of Iowa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 저작으로 “Authoritarians at Risk: A Re-Examination of Authoritarianism from the Perspective of Prospect Theory”, “직접민주주의와 소수자 차별: 2004년 미국 대선과 미국의 동성결혼 금지법 주민투표를 중심으로”, “정치심리학: 역사와 현황” 등이 있다.